◇ 提 言 ◇

養鹿活性化는 協會機能 正常化에 있다

本會理事 李 壽 星

現在 우리 養鹿業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展望은 어떠한 것인지 各者 나름대로의 主觀的判斷에 依存하고 있을 뿐이지 客觀性있는 判斷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사슴의 分讓去來도 鈍化되고 따라서 그 價格도 急轉直下로 暴落했으나 그 영문도 모르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狀態下에서는飼養管理의 合理的 方法 開發이라든지 鹿茸의 商品價格向上이나 價格調整 等에 關해서는 生覺조차 할 수 없는 實情이며 거기에다 衡平性을 無視한 過度한 課稅에도 束手無策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는 形便입니다.

이와같이 自然現象에다 運命을 全的으로 맡기고 살든 原始時代를 聯想케 하는 寒心스러운 이런 狀態에서 언제까지 허덕이고 지내야 합니까.

어느 나라 어느 社會에서든 어떤 種類의 業이든 같은 業을 營爲하는 同類가많으면 서로 提携하고 組織하여 多數의 힘을 形成하여 權益의 擁護와 伸長을 圖謀하고 나아가 發展을 爲한 各種方法과 技術을 硏究開發하여 相互發展을 꾀하는 것이 經濟活動의 基本行爲일터인데 우리 養鹿業界에는 組織體라고 있는 것이 韓國鹿茸協會인데 數千으로 推算되는 業者中에서 겨우 500이 채 못되는 會員이 加入되 있을 뿐이며 그 500이 채 못되는 會員마저도 會費를 제대로 내는 會員은 300이 될까말까 하는 形便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이 業의 繁榮發展을 바랄 수 있겠읍니까. 이런 狀況속에서도 衰는의 奈落으로 轉落해 버리는 비참한 運命에 빠지지 않고 있는 理由는 우리나라에 形成되 있는 바탕이 오랜 傳統으로 養鹿業이 워낙 有名하기 때문이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바탕이 持續되리라 믿는다는 것은 지나친 自己 安息的 誤算이며 멀지않아 北風雪寒속에 내동댕이 처질날이 오리라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않게 하기 爲해서라도 그리고 보다낳은 來日을 누리기 爲해서라도 우리의 힘을 結集해야 하는 것이 時急하다하겠읍니다.

現在 協會에서는 知覺있는 몇몇 特志家들의 贊助에 依存해서 우리 業界의 發展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읍니다만 財政的 뒷받침이 워낙 微弱한지라 그 活動努力이 限界를 넘지 못하고 있는터라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形便입니다.

이와같은 꼴이된 原因은 몇사람들만의 利害損得關係로 해서 사슴輸入派다 反對派다 하여 對立爭鬪에 餘念이 없었는데 있으며 近因으로

서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業者들의 自覺不足에 있다하겠읍니다.

이제야말로 協會란 集結體로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할 必要性이 切實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或者는 「協會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 주는 것이 있어야 加入을 하지」라고 합니다만 肥培管理도 하지 않는 나무에서 열매따기를 바라는 거와 꼭같은 理致라 하겠읍니다.

協會란 나무는 現在 열매는 커녕 枯死直前에 놓여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열매가 연단말입니까.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열게하는 길과 方法은 瞭然한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十匙一飯 우리의 힘으로 協會를 가꾸어 힘있는 協會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或者는 「協會가 든든해지고 財政이 넉넉해지면 어느 놈에게 좋은일 시켜 줄려고」라고 합니다만 協會의 執行部를 맡은 사람도 여러분이 選出하는 것이며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를 監視監督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한단말입니까. 이것은 남을 疑心 한다기보다 自己 否定의 넌샌스로서 自身을 疑心하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나라에는 가나오나 詐欺奸雜군이 많다는 것이며 盜賊놈이 많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드래도 내가 똑바로 눈을 뜨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같은 敗北意識에서 나오는 消極的이고 退嬰的인 思考方式에서 脫皮해서 積極的이고 前進的인 思考方式으로 轉換하여 協會運營에 積極的으로 參與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이것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인데도 不拘하고 이 業의 發展을 爲해 「내가 아니드래도 누가 힘써줄 사람이 있을 터이니 기다리고 있다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게 되면 그만이지」하면서 袖手傍觀할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사람이야말로 이 業界를 亡치고 나아가서는 自己도 亡하고 말게 하는 무서운 毒을 지닌 危險千萬한 사람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危險한 사람이 많다면 어느 集團 어느 社會 어느 나라가 窮局에 가서는 亡하고 만다는 것은 社會變遷史에서 許多히 立證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業界의 오늘의 實態를 똑바로 보고 밝은 來日을 오게 하기 爲하여 心機一轉 協會機能의 活性化 作業에 參與하여 우리 손으로 有能하고 誠實한 일꾼을 찾아서 課業遂行을 맡기고 우리가 빠짐없이 會費를 醵出한다면 財政的 뒷받침도 넉넉하게 될 터이며 協會의 機能도 回生될 터이니 아래와 같은 탐스러운 열매를 豐盛하게 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會誌「週刊 旬報 月刊」等 形便에 따라 發刊해서 業界의 實態와 動向은 勿論 飼養管理의 合理化方案 사슴, 鹿血 鹿茸等의 流通價格等 必要한 事項等 內容으로 해서 各 會員에게 配布하게 되면 爲先 사슴價格에 있어서도 知覺없는 仲商들의 弄絡에 左之右之 當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這間의 사슴價格의 動態는 需要供給의 原理에 따른 自然現象이 아님은 鹿茸의 莫大한 輸入量에서도 알 수 있읍니다.
2. TV, 新聞等 弘報 媒體를 通해서 養鹿業의 打算性과 將來性·鹿茸의 國民保健上의 效能, 國內産과 輸入 鹿茸의 質的分析 內

容等을 弘報하여 一般國民에게 올바른 認識을 심어 주게 된다면 사슴의 分讓去來도 活發하게 될것이며 國內産 鹿茸의 需要도 增加할 것이며 輸入品 選好度도 是正될 것은 틀림없는 事實임을 疑心치 않읍니다.

3. 國內産 鹿茸은 未加工品인데도 特消稅賦課의 對象品으로 認定받는 不當性과 所得稅의 他畜産과의 不均衡賦課의 不當性을 是正하여 억울한 課稅負擔을 解消시켜야 합니다.
4. 過重한 外債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莫大한 外貨를 浪費해 가면서 不急한 鹿茸을 莫大하게 輸入하는 不當性을 是正토록 해야 합니다.
5. 堂堂한 畜産業으로서 그것도 輸入代替産業으로서의 位置를 確固히 定着시켜서 政策的 뒷받침도 받도록 해야 합니다.
6. 乾燥施設과 技術의 硏究開發로 鹿茸의 商品價値를 向上시켜서 收支改善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7. 飼料의 硏究改善으로 飼養管理의 合理化를 圖謀해야 합니다.
8. 飼料의 共同購入으로 生産費 低廉化에 힘써야 합니다.
9. 飼料의 攝取量에 比較해서 肉牛보다 增體量이 優位에 있음을 勘案하여 食肉代替方案을 講究해야 합니다.
10. 其他 여러가지 해야 할일이 山積해 있읍니다. 養鹿業이 이땅에 뿌리를내렸는 歷史로 보나 普及되어 있는 業者의 數로 보나 위에 列擧한 事項等은 벌써 이루어져 있어야 할 뿐아니라 相當한 境地에 까지 進展되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이제 겨우 執行部의 어거지에 依해 1項의 會誌를 季刊으로 그것도 貧弱하기 짝이 없는 內容으로 發刊되고 있을 뿐이며 8項의 飼養購入斡旋도 部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3.4 5項의 件도 안간 힘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力不足으로 奏效가 神通치 않는 地境이라 實로 寒心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으니 養鹿業의 活性化를 爲해서는 1項에서 10項까지의 일이 時急합니다만 그것보다 先行되어야 할 것은 協會機能의 活性化 다시 말해서 協會에의 財政的 뒷받침이라 하겠읍니다. 아프리카大草原의 動物들도 生存을 爲해 무리지워서 强大動物의 攻擊을 알려주는 信號를 하는 組織的 生活을 한다는데 先進隊列에 끼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養鹿을하고 있는 우리들의 꼴은 도대체 무엇이라 해야 하겠읍니까. 産業社會에로의 進入과 더부러 生存競爭이 치열의 度를 더해가고 있는 이 版局에 언제까지나 이와같이 無組織으로 原始的으로 살아야 하겠읍니까. 現在와 같이 나름대로의 位置에서 個人노름만 하고 있다면 弱肉强食의 原理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아프리카大草原에서 무리지우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나름대로 살다가 마침내 强大動物의 밥이되고마는 弱少動物의 運命을 免치 못할 것은 必然의 結果가 아니겠읍니까.

위에 記述한 事實들이 事理에 맞는 것이라 首肯된다면 養鹿業者들은 遲滯없이 協會 會員이 되어 執行部를 채찍질해야 하며 期待에 副應하지 못하면 期待에 副應할 수 있는 人物을 物色해서 代替하면 되는 것입니다. (現執行部로서도 能히 期待에 副應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니

P3로 계속